

새벽이슬 청년 선교운동

Morning Dew Mission Movement

• Cel: 201-606-3329 • Email: morningdewmission@gmail.com • www.morningdewmission.org

2020년 2월 새벽이슬 선교 편지

2020 새로운 변화

새벽이슬 청년 선교 팀은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Stream Side 선교단체와 함께 연합하고 뉴저지 밀알 선교단과 함께 협력하는 등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BCC(Bergen Community College)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Missio Dei 클럽이 만들어졌고 새벽이슬 선교 단체의 창립 이례 처음으로 2명의 청년들이 간사로 헌신하였습니다.

SERVICE HOURS

BCC Missio Dei 캠퍼스 예배 (월, 수 8- 9pm)

화요 밀알 봉사와 예배 (화 7- 9pm)

수요 새벽이슬 성경공부 (수 7- 9pm)

목요 Stream Side 훈련 /성경공부 (수 5- 9pm)

금요 아침 예배(금 7-8am)

금요 노방전도 (노방찬양 / 전도) (금 7- 9pm)

토요 새벽기도 (토 6- 8am)

토요 초청 예배 & 첫째주 밀알 봉사 (토 11- 2pm)

**주일은 각자 출석 교회에서 섬깁니다.

2020 사역과 일정의 변화

1. 아침예배 일정: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아침 예배를 Bergen Community College 와 NJAT Highschool에서 번갈아가며 드립니다. 월, 수는 BCC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화, 목은 NJAT Highschool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금요일은 동일하게 미션홈에서 7시에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2. 저녁예배 일정: 올해부터 저녁예배 일정은 화요일 밀알 봉사와 예배, 수요일 성경공부, 목요일 Stream Side 훈련모임, 금요일 노방찬양과 전도로 2020 상반기를 보내게 됩니다.
3. 토요 초청예배 일정: 첫째주는 뉴저지 밀알에서 봉사, 나머지는 청년들을 전도하여 초청하는 초청예배로 동일하게 드려질 예정입니다.

기도제목

1. BCC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Missio Dei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2. NJAT Highschool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청소년 세대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기도해주세요.
3. Stream Side 와의 연합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 세대와 다음세대를 섬기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새벽이슬들을 볼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4. 새롭게 헌신하게 된 청년 간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두 청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떨어지지 않는 힘을 공급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5. 시편 110편 3절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이 가까이다가온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 군대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올려드리며 새벽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역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2020년 2월 새벽이슬 소식

<미션홈 데코>



<친구초청 파티>

미션홈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Thanksgiving 을 맞아서 현지에 가정이 없는 청년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Youth Wave Conference>



Stream Side 에서 매년 주최하는 Youth Wave 집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기 위한 집회입니다. 새벽이슬 선교 팀은 이것을 위해 Stream Side 와 연합하여 집회를 섬겼습니다.

<Chiropractic Doctor 새벽이슬 방문>



<뉴저지 밀알 사랑의교실 봉사> 정재현 의사 선생님께서 허리 디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청년을 위해 새벽이슬을 찾아 주셨습니다. 귀한 수고와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새벽이슬 방문>

<토요예배 친교>

새벽이슬의 첫 사랑의교실 봉사 기념 단체사진



<볼리비아 최천휴>



<NJAT Highschool 아침예배>

<간사 리트릿>



매주 화, 목
NJAT
Highschool
에서 드려지는
예배 현장



새벽이슬
청년 간사들이
일년을 계획하고
단합하고자
간사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